

한강 '채식주의자' 날개...하룻새 4만여권 팔려



맨부커상 수상 특수 5·18소설 '소년이 온다' 주목 서점가 기획전 사은품 증정도

차지한 해민 스님의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을 제치고 1위에 오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채식주의자'를 비롯해 한 작가의 저서 13권의 판매량은 1만1852권으로, 작품별 판매권수는 '소년이 온다'와 곧 발간 예정으로 사전 판매 중인 '흰'이 '채식주의자'의 뒤를 이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다룬 '소년이 온다'는 전일 대비해 판매량이 22배 늘었다는 점이다. 또한 한강에 대한 작가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녀의 부친 한승원 작가의 소설 '초의'를 찾는 손길도 이어지고 있다.

조선영 예스24 도서팀장은 "한강의 맨부커상 수상 효과는 한국 소설계의 좋은 자극제가 되고 있다"며, "최근 잇달아 출간되고 있는 국내 작가들의 작품을 독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작가와 만남의 자리를 대폭 늘리는 등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보문고도 '채식주의자'가 17일 오후 3시 기준으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3200부가 팔려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보문고에 따르면 오프라인 매장에 있던 500부 가량의 재고가 오전 중에 모두 판매됐다고 한다.

'채식주의자' 뿐만 아니라 '소년이 온다' 등 한강의 다른 소설도 주목을 받으면서 그의 책 10여 종이 오후 3시까지 3700여부가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날보다 14.8배가 늘어난 것으로 교보문고 관계자는 "수상 소식 이후 '채식주의자'와 다른 책들에 대한 문의가 계속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른 인터넷 서점 알라딘에서도 수상작 '채식주의자'가 날개돋친 듯 팔려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라딘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월 동시간대 대비 30배 이상 늘었다. 특히 수상 소식이 집중 보도된 오전 9시~11시 사이에는 1분에 7권씩 판매되는 등 기록적인 판매량을 보였다"고 말했다.

업계는 모처럼 찾아온 특수를 활용해 '부커상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다. 예스24는 한강의 저서 기획전을 연다. 19일까지 블로거에 한강 작품 리뷰 대회를 열고 축하 메시지를 남기면 선물을 증정할 계획이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18일 오전 서울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한 시민이 한국인 최초로 맨부커상을 받은 소설가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보였다"고 말했다.

교보문고도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작품 기획전을 개최한다. 알라딘 또한 기획전을 마련해 작가의 도서 및 맨부커상 후보 작가의 책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사은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교보문고도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작품 기획전을 개최한다. 알라딘 또한 기획전을 마련해 작가의 도서 및 맨부커상 후보 작가의 책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사은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최영미 시인, '잔치'는 끝나고 생활고...

'근로장려금 신청 통보' 고백

'서른, 잔치는 끝났다' 등으로 유명한 베스트셀러 시인 최영미(55)가 최근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된 사실을 스스로 공개해 주변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그는 지난 16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포세무서로부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내가 연간 소득이 1300만원 미만이고 무주택자이며 재산이 적어 빈곤층에게 주는 생활보조금 신청 대상이란다"라고 올렸다.

이어 "약간의 충격. 공돈이 생긴다니 반갑고 (베스트셀러 시인이라는 선입견 없이) 나를 차별하지 않는 세무서의 컴퓨터



가 기특하다. 그런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나"라고 탄식했다. 또 "아는 교수들에게 전화를 걸어 시간 강의를 달라고 애원했다. 생활이 어려워 니 도와달라 말하니 학위를 묻는다. 국문과 석사학위도 없으면서 시 강의를 달라 떤는 내가 한심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책을 낸 출판사에

전화해 '근로장려금 대상자'임을 내세워 2년 넘게 밀린 시집 인세를 달라고 '협박', 3년 전 발행한 책의 인세 89만원을 받았다고 전했다.

최 시인은 1980~1990년대 민주화 세대의 빛과 그림자를 노래한 '서른, 잔치는 끝났다'를 1994년 발표해 문학계 안팎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 시집은 현재까지 무려 52쇄를 찍어 시집으로서 보기 드문 베스트셀러다. 지난해 11월 21년 만에 개정판을 내기도 했다. /연합뉴스

광장음악회 '오! 광주'

21일 노대동 물빛호수공원 ... 입을 위한 행진곡 등 불러

73회 광장음악회가 오는 21일 오후 7시30분 노대동 물빛호수공원에서 열린다.

이번 음악회는 '오! 광주'를 주제로 제 36주년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광주 정신을 일깨우는 무대다.

1부에서는 프로젝트 앙상블 '련'이 출연해 '아직 끝나지 않은 5월의 어느 날' 공연을 펼친다. 세타령을 시작으로 '중천', '입을 위한 행진곡', '호접몽', '그리워할련', '상여', '살풀이', '아리랑'을 차례로 들려준다.

제2부에서는 클래식 선율을 즐길 수 있다. 바리톤 박병국씨가 '산아'(신동수 곡), 소프라노 김혜미씨가 '아리 아리랑'(안정준 곡)을 들려주고 듀엣곡 'I Believe'(에릭 레비)를 선사한다. 또 테너 김백호씨가 '봄날은 간다'(박서준 곡), '그대에게 내 말 전해주오'를 선사한다.

마지막 레퍼토리는 시민합창단과 함께하는 '입을 위한 행진곡'과 '오월의 노래'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 출신 심영의씨 '5·18과 문학적 파편들' 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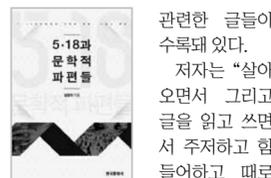
오월 소설 다양한 관점 조명

다양한 관점에서 5·18 관련 소설을 조명해 연구서가 출간됐다.

광주 출신 심영의 박사가 펴낸 '5·18과 문학적 파편들'은 5·18 문학 연구 논문과 같은 맥락에서 지배담론에 저항하는 소수자문학 관련 논문을 엮은 것이다.

연구서는 기존의 5·18과 문학 연구에서 비롯된 혹은 확장된 사유의 결과로, 저자의 그동안의 학술적 글쓰기를 종합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책은 1부에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인 '5·18문학평론 소설 연구'를 일부 수정한 논문이, 2부에는 학위 논문 이후 학술지에 발표했던 5월 관련 글들이, 제3부에는 여성과 장애인문학 그리고 다문화 소설과 지역문학 등과



관련한 글들이 수록돼 있다. 저자는 "살아오면서 그리고 글을 읽고 쓰면서 주저하고 힘들어하고 때로는 길을 잃기도

했겠으나 가고자 했던 길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은 듯 싶다"고 의미를 부여한다.

한편 저자는 전남대 국문과 박사과정을 졸업했으며 1994년 전남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다.

소설집 '그 희미한 시간 너머로', 장편 '사랑의 흔적'을 비롯해 연구서 '작가의 내면, 작품의 틈새' 등을 펴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성애순·안승훈 가야금 2인 음악회 '동행II'

내일 전남대 예술대 지음홀

성애순·안승훈의 가야금 2인 음악회 '동행II'가 20일 오후 7시 전남대 예술대학 지음홀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계면가락도드리·양창도드리·우조가락도드리 등 세 개 악곡으로 이뤄진 합주곡 '천년만세'로 무대를 시작한다. 안 교수가 양금, 성 교수가 가야금을 맡는다. 이어 최후 가야금 협주곡 '중구곡 1번'(이강덕 곡)이 이어진다. 가야금 산조를 중심으로 현대적인 감각이 가미된 곡으로 두 연주자가 들려주는 가야금 선율이 조화롭게 펼쳐진다.

세번째 곡은 성 교수가 나서 '성금연류 가야금산조'를 들려준다. 애절한 멋과 연주자가 즉석에서 선보이는 즉흥성이 특징이다. 마지막은 안 교수가 '강태홍류 가야금산조'를 선사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성애순 교수 안승훈 교수

담백하고 절제미가 엮이는 곡으로 복잡하고 불규칙적이며 잊박이 많이 나타난다. 장구는 김동현(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교본 이수자) 광주교육대 교수가 맡는다.

성 교수는 중요무형문화재 23호 가야금산조 이수자로, (사)한국가야금연주자협회 이사, (사)최옥삼류가야금산조보존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안 교수는 (사)김병호가야금산조보존회 부이사장, 서울악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체육관련시설 2층 상가매매

(에어로빅, 헬스, 당구장, 체육관, 기타) 넓은주차장 용봉, 문흥지구 중심상가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2칸)
- 매 7억5천만원(근저당 5억)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전남대 부근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 성업중 직영하실분 환영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급매 조정가)

복성중 28회 친구 찾기

- 상균이, 호승이, 재준이와 28회 졸업생 690명을 찾습니다.
- 복성28회를 아시면 신고해주세요 (매월 28일 정례모임중)

김행권(복성 28회 살림꾼) 010-3379-2209

www.솔향기맑은터.com

www.naver.com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 전문점 예약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솔향기 맑은터는 정갈한 전월동 그리고 뛰어난 도시에서 100% 귀하게 있습니다.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행복한 모임을 위한 돼지갈비전문점으로 바뀝니다. 돼지갈비, 매콤갈비찜정식, 딱딱비정식, 솔향기정식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50% 할인
- ▶ 주말 및 연말연시 모임은 사전예약으로 차질없게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베는날 화, 목, 토, 일 불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농가대상)

사전예약시 ▶ 12인승, 25인승 차량 무료운행 / 컨퍼런스룸, 족구장 무료이용 가능